

## 푸틴 정부의 신유라시아주의 수용과 대외정책적 구현

라브산베코바 바흐티어르한\* · 정희석\*\*

### •요 약•

푸틴 정부 시기 신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대외정책과 지역 통합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상은 러시아의 문명국가 정체성과 다극질서 구상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반이자, EAEU와 CSTO를 통한 지역 재편 전략의 이론적 틀로 기능하였다. 푸틴 정부의 신유라시아주의 수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실용주의 외교가 우선되어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구소련 지역 재통합 필요성, 다극화 추세, 서방과의 대립 심화 속에서 핵심 요소가 점차 정책과 공식 담론에 반영되었다. EAEU 출범과 CSTO 강화, “러시아 세계” 담론 확산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경제적 비대칭성, 회원국의 주권 우선 원칙, 반러 정서의 고착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러시아가 의도한 수준의 통합 심화는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신유라시아주의는 여전히 러시아 전략세계관의 핵심 담론으로 남아 있으며,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대외정책 추진과정에 더욱 더 전략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주제어 : 신유라시아주의, 푸틴 정부, 러시아 대외정책, 러시아 정체성, 통합 전략

## I. 서론

소련 해체는 러시아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기며 기존 체제의 붕괴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했다.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의 제국적 경험은 독자적 국민국가 정체성의 형성을 지연시켰고,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국가적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

\*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수료 :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교신저자

한 혼란 속에서 러시아 학계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유라시아주의가 새로운 전략적 정체성의 후보로 부상했다. 초강대국 체제 약화, 다극 질서 강화 요구, 서구 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역사적·문화적 공통성에 기반한 유라시아 통합 구상이 대안적 비전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보리스 옐친(Boris N. Yeltsin) 정부가 서구 지향성을 강화하며 정체성을 재구축하려 했으나 경제 위기와 사회적 반발로 한계를 드러내자, 2000년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 Putin) 집권기 이후 러시아는 유럽 중심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율적 문명국가 노선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유라시아주의(Neo-Eurasianism)는 국가 담론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러시아의 대외전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신유라시아주의의 사상적 기원인 고전적 유라시아주의(Classical Eurasianism)를 주창한 니콜라이 트루베츠크이(Nikolai S. Trubetsky)<sup>1)</sup>, 표트르 사비츠키(Pyotr N. Savitsky)<sup>2)</sup> 등은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아닌 독자적 문명공간으로 이해하였다. 신유라시아주의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러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에 맞게 재해석된 사상으로, 러시아를 독자적 문명국가로 보고 유라시아를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규정한다. 이는 러시아 중심의 지역 질서를 정당화하고, 서구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근거가 된다.

기존 연구들은 신유라시아주의를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전략을 설명하는 사상적 정책적 틀로 분석해왔다. 대표적으로 신유라시아주의자들인 레프 구밀료프(Lev N. Gumilev), 알렉산드르 두긴(Alexander G. Dugin), 알렉사드르 파나린(Panarin A. Sergeevich) 등의 이론적 계보를 정리하거나, 푸틴 시대 국가 담론 속에서 유라시아주의의 이념적 기능을 해석한 연구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상적 기원, 이념적 구조, 담론적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유라시아주의가 실제 정책 형성과 제도 구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 속에서 신유라시아주의가 어떤 단계와 메커니

1) Трубецкой, Николай С. 1996. *Европа и человечество*, Москва, 778.

2) Савицкий, Петр Н. 1997. *Континент Евразия*, М.: Аграф, 464.

3) Laruelle, Marlène. 2008.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69.; Erşen, Emre, 2004. "Neo-urasianism and Putin's 'multipolarism' in russian foreign policy", *Turkish Review of Eurasian Studies*. Annual, №4, 139.; Осадчая, Галина И. 2019. *Становлени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деи, реальность, потенциал: монография*, Изд-во«Экон-Информ», 379.

즘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등 기구의 구체적 제도 설계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연구적 공백 속에서 본 연구는 신유라시아주의의 담론적 의미를 넘어, 실제 정책 및 제도적 수준에서의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 II.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 사상적 기원과 진화

### 1. 사상적 기원으로서의 고전적 유라시아주의

오늘날 러시아의 핵심 정치사상이자 국제관계 사상인 신유라시아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유럽으로 망명한 러시아 지식인들에 의해 형성된 유라시아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유라시아주의는 신유라시아주의와 대비시켜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라 불린다. 혁명 당시 대다수의 러시아 망명 지식인들이 혁명을 파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인식했던 반면,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혁명을 단순한 비극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긍정적 요소를 지닌 역사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공산주의는 세속화된 유럽 문화의 산물로 간주되었으며, 러시아적 맥락에서는 서구주의의 극단적 형태로 평가된다.<sup>4)</sup>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의 독자적 정체성과 문명적 자율성을 강조한 슬라브주의자(Slavophiles)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슬라브주의는 서구주의자(Westernizers)에 맞서 러시아의 고유한 역사적 정체성과 자생적 발전을 강조한 이념적 흐름으로, 러시아가 서유럽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민족적 전통과 정교를 중심으로 한 가치에 기반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유라시아주의가 러시아를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독자적 문명으로 규정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sup>5)</sup>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사상적 기반은 생물학자 니콜라이 다닐레프스키에서 비롯된다. 그는 각 문명이 고유한 발전 경로를 지니며 외부를 모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4) Исаева, Оксана С. 2023. “Идеи классических евразийцев в неоевразийских учениях”, *Электронный научный журнал «Наука. Общ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о»*, Т. 11, № 2, 111-121.

5) 정희석. 1999. “19세기 러시아 친(親)슬라브주의자들의 슬라브 통합사상: 크림전쟁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제39집 제1호, 279-299.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이론은 슬라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sup>6)</sup> 이후 니콜라이 트루베츠크이, 표트르 사비츠키, 표트르 수브친스키(Pyotr P. Suvchinsky) 등이 이 사상을 체계화하며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이론적 틀을 확립하였고, 게오르기 베르나츠키(Georgy V. Vernadsky), 레프 카르사빈(Lev P. Karsavin)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이를 철학적, 역사적 및 법적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유라시아 지역을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이 아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제3의 문명 대륙(Third Civilization Continent)”으로 보았다. 유라시아를 두 대륙 사이의 경계가 아니라 중심 대륙으로 규정했다.<sup>7)</sup> 그들은 유라시아를 지리적 공간이 아닌 문명사적 통합의 장으로 이해했으며, 광대한 평야 지대와 특수한 자연·기후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문화적 교류가 약 2,500년에 걸쳐 고유한 통합성과 유기적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았다.<sup>8)</sup>

이러한 독자적 문명 공간의 중심에는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었다. 베르나츠키는 유라시아 통합체의 중심이 되는 핵심 주체로 러시아를 강조했다. 그는 “유럽 러시아”와 “아시아 러시아”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의 러시아, 즉 “유라시아 러시아”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sup>9)</sup> 사비츠키 역시 러시아-유라시아 개념에서 러시아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를 칭기즈 칸과 티무르 제국의 전통을 잇는 중앙집권적이고 군사적 성격의 강한 유목 제국으로 보고, 그 부흥을 위해 국경 회복과 유라시아 민족 통합, 정교회 보호를 강조했다.<sup>10)</sup>

이처럼 초기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의 문명적 독자성과 중심성을 강조하는 한편, 강한 반유럽중심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들은 유럽 문명이 스스로 보편성을 주장하며 타 문화를 평가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러시아가 유럽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한 결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 엘리트와 대중 간 괴리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1917년 혁명으로의 귀결을 러시아의 오랜 유럽화 시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다.<sup>11)</sup>

6) Осадчая, Галина И. 2019. *Становлени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деи, реальность, потенциал: монография*, Изд-во «Экон-Информ», 12.

7) Савицкий, Петр Н. 1997. *Континент Евразия*, М.: Аграф, 279.

8) Осадчая, Галина И. 2019. *Становлени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деи, реальность, потенциал: монография*, Изд-во «Экон-Информ», 15-16.

9) Вернадский, Георгий В. 2014. *Начертание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Эксмо, 336.

10) Савицкий, Петр Н. 1993. “Степь и оседлость. Россия между Европой и Азией”, 123-130 (온라인), <http://gumilevica.kulichki.net/SPN/spn03.htm> (검색일: 2025.06.12.).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동양에 대해서도 양가적 태도를 보였다. 트루베츠크이는 불교와 힌두교의 내세 지향성과 세계 부정을 정교회적 관점에서 비판하며, 아시아 사상이 러시아의 창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함께해 온 아시아 민족의 문화와 종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러시아-유라시아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요소로 보았다.<sup>12)</sup>

이처럼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는 혁명 이후 러시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 속에서 형성된 사상으로,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의 주변이 아닌 독자적 문명권의 중심으로 규정하고 자율적 발전 경로를 모색했다. 이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러시아 문명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유라시아 내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이후 유라시아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 2. 탈냉전의 도래와 신유라시아주의의 부상

소련 시기 유라시아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이념적 불일치로 “반혁명적” 사상으로 배척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학계에서 점차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소련 해체 이후 급변한 국제 질서 속에서 러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전략을 모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유라시아주의가 부상했다. 냉전 종식으로 초강대국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 질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서구 자유주의 모델의 대안으로 역사적 연대와 문화적 공통성에 기반한 유라시아 통합 구상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유라시아주의의 사상적 복원과 발전의 기초에는 레프 구밀료프의 사상적 유산이 자리한다. 그는 민족발생이론(Ethnogenesis Theory)과 열정성(Passionarity) 개념을 통해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를 재해석하였다. 구밀료프는 러시아를 슬라브족, 핀우그리아계, 튀르크계의 융합으로 형성된 복합적 민족으로 보고, 이러한 통합적 기원을 유라시아적 정체성과 강인함의 근원으로 해석하였다.<sup>13)</sup> 또한 문명 간 공존은 차이의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유라시아를 유럽과 구분되는 독자적 지리적·문화적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혼족에서 러시아 제국에 이르는 역사적 통합을 유라

11) Осадчая, Галина И. 2019. *Становлени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деи, реальность, потенциал: монография*, Изд-во «Экон-Информ», 18.

12) Грубецкой, Николай С. 1922. “Религии Индии и христианство”, *На путях, Берлин*, 177-229 (온라인), <http://gumilevica.kulichki.net/TNS/tns12.htm> (검색일: 2025.02.18.).

13) Гумилёв, Лев Н. 2009. *Ритмы Евразии: эпохи и цивилизации*, СПб.: Ленинград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60.

시아 문명의 발전 단계로 설명하였다.

구밀료프 이후 1990년대에 신유라시아주의를 가장 일관되게 발전시킨 인물로는 알렉산드르 두긴, 알렉산드르 파나린, 알렉산드르 프로하노프(Alexander A. Prokhanov) 등이 꼽힌다. 이들은 러시아를 소련의 역사적 문명적 계승국으로 재정립하고, 슬라브와 튀르크 민족의 연대를 기반으로 지정학적 영향력의 회복과 강대국으로서의 부흥을 모색하였다. 또한 서구 중심의 일극 질서에 대응하여 유라시아를 자율적 문명권이자 다극 세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사상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시기 신유라시아주의 담론은 러시아 학계뿐 아니라 신우파와 신좌파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관심을 끌며 확산되었다. 이는 러시아 사회가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던 상황과 맞물렸고,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지자들의 입장도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신유라시아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2년 이후 신유라시아주의 관련 개념은 빠르게 일반화되었고, 두긴의 사상을 중심으로 철학적 전통이 지정학적 전략과 결합하며 재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Vladimir V. Zhirinovskiy)와 게나디 주가노프(Gennady A. Zyuganov) 등 주요 민족주의 정치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신유라시아주의 담론을 수용하였다.<sup>14)</sup>

이들은 신유라시아주의의 여러 요소 중 특히 지정학적 측면을 강조하며, 이를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국가 부흥 전략과 결부시켰다. 그 결과 신유라시아주의는 문화·철학적 사상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다. 지리노프스키는 두긴의 사상을 토대로 정교 중심의 범슬라브주의와 남방 확장론을 발전시켰고, 주가노프는 이를 국가 계승성과 민족 통합의 정치 이념으로 수용했다. 두 인물 모두 신유라시아주의를 정치적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했다.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그가 발표한 “러시아: 세기 전환기(1999)”<sup>15)</sup>와 “2000년 ”연방의회 대통령 연설“<sup>16)</sup>을 통해 다시 제기되었다. 이 연설들에서 푸틴이 러시아의 위대한 국가 정체성과 세계적 역할을 강조하자, 신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이념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두긴을 비롯한 신유라시아주의 이론가들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와 포스트

14) Laruelle, Marlène. 2008.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5.

15) Путин, Владимир. 1999. “Россия на рубеже тысячелетий” (온라인), [https://www.ng.ru/politics/1999-12-30/4\\_millennium.html](https://www.ng.ru/politics/1999-12-30/4_millennium.html) (검색일: 2025.11.18.).

16)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온라인),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480> (검색일: 2025.11.18.).

소비에트 공간의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다양한 기관들도 푸틴의 발언을 인용하며 신유라시아적 통합 구상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다.<sup>17)</sup>

### 3.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 이론적 체계화와 급진화

러시아 학계에서 두긴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를 현대 러시아의 정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지정학과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확장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역사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신유라시아주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으로 재구성하였다. 두긴에게 지정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 러시아의 경우 필연적으로 유라시아적 성격을 지니며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회복과 직결된 핵심 개념이다.

두긴의 지정학 구상은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헬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 니콜라스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 등 서구 고전적 지정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러시아 중심의 세계관에 맞게 선택적으로 재해석하여, 러시아의 세계 질서 내 역할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전략적 틀로 발전시켰다. 두긴은 세계를 “세계 섬(World-Island)”, “유라시아(Eurasia)”, “림랜드(Rimland)”의 세 구역으로 구분하며, “세계 섬”은 미국과 영국 중심의 해양세력(Thalassocracy), “유라시아”는 러시아 중심의 대륙세력(Tellurocracy), “림랜드”는 동유럽, 중동, 남아시아 등 두 문명권이 충돌하는 완충 지대로,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무대로 간주된다.<sup>18)</sup>

신유라시아주의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 모두 다극적 세계 질서를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러시아-유라시아와 서구의 대립 구도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두 사상은 러시아-유라시아를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을 지키는 대안 문명으로, 서구를 문화적 획일성을 강요하는 문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두긴은 대립의 축을 유럽에서 미국 중심의 현대 서구로 옮기며, 지정학적 경쟁 구도를 새롭게 재편한 점에서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와 차별된다. 그의 구상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지속적 경쟁자이자 전략적 도전 세력이다.<sup>19)</sup>

17) 정희석. 2014. “푸틴정부의 대내외정책에서의 유라시아주의적 경향성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7 (17), 102.

18)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Г. 1997. *Основы геополитик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Москва: Арктогея, 18-41, 94-98.

19) Видеркер, Штефан. 2010. “Континент Евразия: классическое евразийство и геополитика в изложении Александра Дугина”, *Форум новейшей восточноевропейской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 Русское*

두긴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단일한 보편 문명 구축을 지향하는 “몽디알리즘(Mondialism)”<sup>20)</sup>으로 보고, 세계화가 서구의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켜 각국의 문화와 자율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서구 중심 질서에 종속된 것을 주권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가 반세계화적이고 전통주의적 국가들과 유라시아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맞서는 다극 세계 질서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1)</sup>

이러한 관점은 유라시아 블록의 형성 논리로 구체화된다. 두긴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잠재력을 활용해 대서양 세력에 대응하는 통합체 구축을 주장하며, 이를 단순한 경제 협력체가 아닌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유사한 초국가적 정치 공동체, 즉 “유라시아 연방(Eurasian Union)”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는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심장부”를 통제한다는 지정학적 필연성을 근거로, 통합 과정에서 러시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미국 중심 패권 질서에 대한 대안적 질서로 제시했다.<sup>22)</sup>

이러한 유라시아 연합의 형성은 문명론적 접근(Civilizational Approach)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두긴은 현대 세계를 네 개의 주요 문명권으로 구성된 다극적 세계 질서로 파악한다. 첫째, 유럽(또는 유럽-아프리카) 축, 둘째, 유라시아 축(러시아 및 기타 유라시아 강대국 중심), 셋째, 태평양 축(중국과 일본), 넷째, 미국 축이 그것이다.<sup>23)</sup> 두긴은 각 문명이 내부적으로 복잡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며, 세계 질서를 국가가 아닌 문명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

---

издание, 8.

20) 두긴에게 있어 몽디알리즘은 중세의 보편왕국적 유토피아(Utopia)에서 출발해, 이후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와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합리적 형태로 재구성되며 발전한, “단일한 세계질서(One World)”를 지향하는 사상적 흐름이다. 이 개념은 자유주의적 보편가치, 초국적 제도, 경제·정치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국가 주권의 약화를 긍정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대를 정당화한다. 두긴은 이런 몽디알리즘이 실질적으로는 서구, 특히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전략으로 기능한다고 비판하며, 다양한 문명권의 고유한 정체성과 주권을 약화시키고 자유주의 규범을 보편적 기준으로 강요하는 서구적 보편주의의 이데올로기로 평가한다.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Г. 1997. *Основы геополитик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Москва: Арктогея, 70-72.

21)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Г. 1997. *Основы геополитик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Москва: Арктогея, 72-73.

22) Erşen, Emre, 2004. “Neo-urasianism and Putin’s ‘multipolarism’ in russian foreign policy”, *Turkish Review of Eurasian Studies*. Annual, №4, 136.

23)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Г. 2014. *Евразийский реванш России*, Издательство«Алгоритм», Москва, 2.

체에 맞서는 이념적·지정학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두긴의 접근은 다양한 지정학적 개념과 이론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목적이 학문적 분석보다 이념적 실천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비판을 받는다. 그의 문명론적 구상은 세계 질서를 문명 단위로 재편하려는 이론적 시도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러시아의 제국적 확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팽창주의적 성향을 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sup>24)</sup> 아울러 두긴은 지정학을 객관적 분석 도구로 활용하기보다는 국가 이념과 정치적 동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파시즘 및 사회주의 등 상이한 이념을 선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사상적 일관성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 Ⅲ. 푸틴 정부의 신유라시아주의 수용 과정과 대외정책적 구현

#### 1. 제1기(2000~2007년): 실용주의 우선과 이념적 거리두기

소련 해체는 러시아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으며, 이는 단순한 체제 전환을 넘어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과제를 부각시켰다. 러시아는 제국적 전통에 기대어 존속해온 국가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독자적 국민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했다. 그러나 국민국가 형성이 미완성된 채 제국과 소련 체제를 거친 러시아는 통합된 국가적·문명적 정체성을 신속히 확립하기 어려웠다.

1990년대 옐친 정부는 서구 지향성과 소련 유산의 부정을 통해 러시아를 “문명화된 세계”로 복귀시키려 했으나, 급격한 서구화는 사회경제적 위기와 대중의 반발을 초래했다.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서구 중심 노선을 수정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우선시하며 “강한 국가의 복원”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동시에 서방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며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설립, 집단안보조약기구 제도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이는 신유라시아주의의 이념적 실현이라기보다 안보와 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실용적 대응에 가까웠다.

24) Laruelle, Marlene. 2006. “Aleksandr Dugin: A Russian Version of the European Radical Righ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o 294, 1-26.

경제적 차원에서 2000~2007년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단일경제공간 구축을 목표로 한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시기였다. 2000년 EurAsEC 창설 조약 서명과 2001년 발효로 기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승계되고 초국가적 규제 장치와 재판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EurAsEC는 대외무역, 관세, 경제, 사회 및 법률 영역에서 실질적 통합을 추진하며 관세동맹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았고, 이는 단일경제공간 형성 및 거시경제정책 조율 체계 마련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7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단일관세영역 및 관세동맹 합의는 2010년 관세동맹 발효와 단일관세법전 도입으로 이어지며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확립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sup>25)</sup>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의 군사적 영향력과 안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을 주도했으나, 체첸 전쟁과 회원국 탈퇴로 한계를 겪었다. 푸틴 집권 이후 CST는 2002년 집단안보조약기구로 재편되어 국제기구로 승격되고, 2004년 UN 옵서버 지위 획득, 2009년 집단신속대응군(Collective Rapid Reaction Force) 창설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 중심의 NATO에 대응해 독자적 안보 블록을 구축한 것으로, 초기에는 패권 확장보다는 역내 안보 공백을 메우는 실용적 협력 성격이 강했다.<sup>26)</sup>

또한, 2000~2007년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회복기로, 협력의 제도화가 진전되는 한편 통합의 속도와 범위가 국가별로 달라진 시기였다. 대외경제 여건 개선과 내부 안정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성장세를 보였으나, 소득과 GDP 격차가 심화되며 통합의 균형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CIS는 실용주의적 협력으로 전환해 자원 공급 다변화와 새로운 에너지 수송 경로 구축을 추진하며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sup>27)</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1기(2000~2007년)는 신유라시아주의의 이념적 수용보다 국가 재건과 경제·안보 분야의 실용적 필요가 우선적으로 작동한 시기였다. 푸틴 정부는 서구와의 협력을 병행하면서 EurAsEC와 CSTO의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이는 문

---

25) Осадчая, Галина И. 2019. *Становлени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деи, реальность, потенциал: монография*, Изд-во «Экон-Информ», 37-38.

26) "From the Treaty to the Organization",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온라인), <https://en.odkb-csto.org/25years/> (검색일: 2025.06.09.).

27) Осадчая, Галина И. 2019. *Становлени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деи, реальность, потенциал: монография*, Изд-во «Экон-Информ», 33-36.

명적·이념적 통합이라기보다 관세동맹과 안보협력 등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조치에 가까웠다. CIS 역시 실용적 협력 중심으로 재조정되면서 이념적 통합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를 전략적 담론으로 유지하되,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경제·안보 중심의 실용주의가 주도적인 방향성을 형성했다.

## 2. 제2기(2008~2014년): 서방과의 갈등 속 제한적 수용

2000년대 초반 러시아와 서방 간 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지속적인 동진 정책이었다. 1999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가입으로 탈냉전 이후 첫 확장이 이루어졌고, 2004년에는 발트 3국을 포함한 7개국이 추가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확대가 단행되었다. 이어 2008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정식 가입함으로써 NATO의 지리적 범위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러시아의 위협 인식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러시아로 하여금 자국의 안보 공간이 점차 잠식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불안감은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으로 표출되었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구조적 갈등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러시아의 대외정책성 재정립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전후 러시아는 서방 중심 질서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독자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외교 담론을 재편했다. 이에 따라 신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정당화 논리이자 새로운 지역질서 구상의 이론적 기반으로 부상했다.

2008년 이후 신유라시아주의는 “주권적 다극주의”와 “문명적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푸틴 정부는 이러한 담론적 전환을 바탕으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통합 구상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10년 관세동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단일관세법전이 도입되어 제도적 통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1년 말 단일경제공간 창설 선언문이 서명되었으며, 이는 초국가적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sup>28)</sup> 불과 3년 뒤인 2014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조약이 최종 서명되면서 경제통합의 제도적 완성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28) “Декларация о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от 18 ноября 2011 г.,”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온라인), <https://eec.eaunion.org/upload/medialibrary/0de/Deklaratsiya-2011.pdf> (검색일: 2024.08.05.).

또한, 서방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외교적 균형을 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07년 러시아 주도의 CSTO와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양측의 전략적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적 연계를 구체화한 조치였다. 이 문서는 정례 협의, 정보 교환,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을 규정하며 지역 안보와 안정에 대한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sup>29)</sup>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신유라시아주의의 제도적 수용은 그 이념적 목표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통합 전략에 중대한 제약을 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격화는 외교 및 경제 전반의 대립으로 확산되었으며, 서방은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 제한, 인프라·에너지 분야 투자 금지, 금융 대출 중단,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시행했다. 더불어 러시아의 G8 자격 정지와 서방 국가들과의 정치 대화 중단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30)</sup>

이와 같은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세계(Russian World)”<sup>31)</sup> 개념을 기존의 문화·언어 공동체 중심의 담론을 넘어, 구소련 공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정학적 도구로 확대하였다. 2007년 “러시아 세계” 재단 설립을 계기로 이 개념은 공식 제도화를 거쳤으며, 이후 해외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 홍보가 전개되었다. 특히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이 개념은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문명적 일체성 담론과 결합하였고, 발트 3국 등 러시

29)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Секретариатом ШОС и Секретариатом ОДКБ”, 2007, Шанха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온라인), <https://rus.sectscsco.org/20071005/45214.html> (검색일: 2025.08.06.).

30) Махмутова, Евгения В. 2019. “Влияние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на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Вест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ом 14, № 3, 102-103.

31) “러시아 세계”라는 용어는 10~11세기경 고대 루스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문화적·민족주의적 맥락에서 다시 사용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글레브 파블로프스키(Gleb O. Pavlovsky)와 게오르기 셰드로비츠키(Georgy P. Shchedrovitsky) 등이 이 개념을 재해석하며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문화적 연계를 설명하는 현대적 담론으로 발전시켰다. 현재 “러시아 세계” 개념은 러시아 문명권의 역사적 경계를 유지·확대하려는 지정학적 관점을 비롯해, 러시아 중심의 자본·제도·인프라가 구축하는 지정학적 경제권, 러시아어·역사·가치를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 그리고 정교 전통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문명·종교 공동체 등 복합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동시에 이 개념은 전 세계 러시아어권 인구의 결집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담론으로 기능하며, 2008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대외정책 정당화와 영향력 확대의 핵심 서사로 적극 활용함에 따라 점차 정치적·전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Волхонский, Михаил А., Муханов, Вадим М. 2019. “Концепция «Русского мира». множественность смыслов в контекст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цессов”,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налитика*, №4 (30), 59-65.

아어권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sup>32)</sup>

이처럼 2008~2014년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의 압박 속에서 독자적 지역질서 구축을 시도했으나, 통합의 심화는 경제실용주의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신유라시아주의의 제도적 수용 역시 그 이념적 목표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세계” 개념은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여 오히려 러시아의 문화·언어적 영향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제약 속에서 본 시기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은 서방과의 갈등 속에서 신유라시아주의가 부분적으로만 수용되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제한적 통합 단계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였다.

### 3. 제3기(2015년~현재): 제도화와 이념적 수용의 심화

지속된 우크라이나 위기와 서방과의 갈등은 러시아의 정체성과 문명적 자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서방의 개입과 “외부로부터 문명적 압력”으로 인식하고, 크림반도 합병을 역사적 정의의 회복이자 주권 수호로 정당화하였다. 이후 대외정책은 문명적 자율성과 가치 중심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신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외교전략의 이념적 방향성을 규정하는 핵심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EAEU의 출범은 이러한 담론의 제도화를 상징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유라시아 담론은 서구 문명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제도화되며, 러시아는 독자적 문명 모델을 지향하는 다극적 세계의 대안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sup>33)</sup>

국제적 차원에서 유라시아 정체성은 유라시아 정체성은 러시아가 지역(EAEU, CSTO 등)과 글로벌(BRICS, APEC. 등) 차원에서 통합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근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재자이자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대응하는 다극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AEU는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와 밀접히 연관된 핵심 기구로 부상했으며, 자원 접근성 확대와 대외경제 다변화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 체제로 기능하고 있다.<sup>34)</sup>

32) Волхонский, Михаил А., Муханов, Вадим М. 2019. “Концепция «Русского мира». множественность смыслов в контекст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цессов”,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налитика*, №4 (30), 59-62.

33) Мальченков, Станислав А. 2022. “Цивилизационный дискурс в высказываниях В. В. Путина”, *Дискурс-Пи*, Т. 19, №2, 61-62.

〈표 1〉에서 보여지듯이, 지난 10여 년간 EAEU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했으며, 외부 충격에도 일정한 회복력을 보였다. 출범 초기인 2015년에는 상호 무역 규모가 약 25% 감소했으나, 2017~2019년에는 전체 경제 규모 대비 각각 27.4%, 10.1%, 2.3%로 점진적으로 회복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로 일시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731억 달러로 반등하였으며, 이후 2022년 833억 달러, 2023년 904억 달러, 2024년 970억 달러로 성장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수치는 EAEU 회원국 간 무역이 각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단순 무역 규모보다 회원국 경제 내 상대적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로 무역 규모가 일시 감소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2021년 반등하였고,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 등 외부 충격에도 2024년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간 점은 EAEU가 단순한 무역 연계 이상의 구조적 경제 통합과 회복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2015~2024년 EAEU 회원국들의 상호 무역 규모

단위: 10억 달러(USD)

	전체 무역 규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EAEU	45,4	43	54,7	60,3	61,6	55,1	73,1	83,3	90,4	97

출처: “Доклад о состоянии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членам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в 2017 году”, 2018,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온라인), [https://eec.eaeunion.org/upload/medialibrary/017/Report\\_2017.pdf](https://eec.eaeunion.org/upload/medialibrary/017/Report_2017.pdf) (검색일: 2025.04.02).; “ЕАБР оценил рост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ЕАЭС за 2022 год на уровне 10,3%”, 2023, Алта-Софт (온라인), <https://www.alt.ru/> (검색일: 2025.10.09).; “Объемы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услугами в ЕАЭС росли быстрее торговли товарами в 2023 году”, 2024, КазТар (온라인), <https://new.kaztag.kz/ru/news/> (검색일: 2025.10.09).

안보적 측면에서도 CSTO는 2015년 이후 러시아의 대외안보 전략에서 핵심적 도구로 자리하였다. 이 시기 CSTO는 평화유지 및 위기대응 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역내 안보 협력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2022년 1월 카자흐스탄 사태 당시 평화유지군 파견은 CSTO가 실질적 집단 대응 능력을 발휘한 첫 사례로 평가되며, 그 존재 이유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켰다.<sup>35)</sup>

34) “ЕАЭС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ий центр формирования Большо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2024,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온라인), <https://russiancouncil.ru/> (검색일: 2025.08.26).

35) “From the Treaty to the Organization”,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온라인), <https://en.odkb-csto.org/25years/> (검색일: 2025.06.09).

〈표 2〉 CS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카자흐스탄	317.6	426.4	592	793	1359.8	1540.8	1271.9	1501.8	1804	2177.5	2551.1
키르기스공화국	55.1	63	75.7	89.8	116.3	149.3	149	184.4	210.7	211.8	234.4
타지키스탄	34.8	45.1	...	...	...	52.5	47.5	53.8	71.3	76.3	...
아르메니아	76.6	98.1	140.7	188.2	280.1	396	359.5	395	390.9	380.6	444.6
벨라루스	231.6	314.3	452.7	631.8	746.9	883	675.4	767.7	756.3	807.4	959.8
러시아	16973.7	20955.4	27337	34517.8	43535	56183.8	51532.1	58720.2	70237.5	81469.4	88352.9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카자흐스탄	2306.5	2046.2	1281.1	1390.6	1498.4	1853.5	1548.2	1617.8	1163.1	1164.3	1209
키르기스공화국	252.1	230.5	227.8	239.4	250.5	254	258.3	262.7	352.1	483.9	473
타지키스탄	104.3	100.7	84.6	78.3	81.4	82.8	77.5	90	203.9	285.1	246.4
아르메니아	457.8	447.4	431.4	443.6	513.3	652	634	619.4	795.2	1326.2	1418
벨라루스	821.5	642.5	719.6	748.8	923.3	899.7	861.1	951.2	1105.2	1579.3	1491.4
러시아	84696.5	66421.8	69245.3	66913	61609.2	65201.3	61712.5	65907.7	102366.6	109203.6	148967.3

\* 모든 수치는 미화 백만 달러(USD) 단위로 표시되었으며, 해당 연도의 환율을 적용한 현재가격 기준  
 \* 밑줄로 표시된 값은 SIPRI의 추정치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온라인),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검색일: 2025.08.30).

〈표 2〉에서 확인되듯이, 러시아의 국방비는 2003년 약 1.7조 달러에서 2024년 약 14.9조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CSTO 내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주도권이 압도적으로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소규모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위 예산 수준을 지속하였다.

정치적 차원에서 러시아-벨라루스 국가연합(Union State)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통합 구상 중 가장 제도화된 형태로 발전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다자 협력체 시도가 제한적 성과에 그친 반면, 국가연합은 정치, 경제 및 군사 협력 구조와 정책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부분적 주권 공유를 실현했다. 이는 러시아 주도의 지역 통합 전략을 실질적으로 시험하는 모델이자 안정적 권력 구조 구축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sup>36)</sup>

이와 같은 제도적 통합과 병행하여 러시아는 문화·언어 정책을 전략적 수단으로

36) Гваришвили А.А. 2021. “К вопросу о природе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еларуси И России”,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3, 75–77.

활용해 왔다. 2015년 “해외에서의 러시아어 지원 및 보급 개념” 제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2022-2031년 국가 프로그램은 러시아어를 역사·문화적 기반이자 통합의 매개 언어로 규정하고, 이를 소프트 파워(Soft Power) 자산으로 제도화하였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문화·언어 전략은 2014년 크림반도 편입 이후 명확한 양면성을 드러냈다. 크림 사태는 “러시아 세계” 담론의 상징적 현실화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주변국에서의 경계심과 반러 정서를 심화시켜,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화 영향력이 약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은 자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언어정책을 확대하였고, ‘러시아 세계’는 제한적으로만 수용되었다.

이처럼 2015년 이후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이념적 정체성 강화, 제도적 통합 심화, 그리고 문화적 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결합된 복합적 구조로 재편되었다. 여기에는 EAEU와 CSTO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통합, 러시아-벨라루스 국가연합 구상, 그리고 “러시아 세계” 담론의 재정립이 동시에 작동하였다. 이는 경제(EAEU), 안보(CSTO), 정치(국가연합) 및 문화(언어 정책 등) 전반에 걸쳐 제도화된 신유라시아 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러시아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즉, 신유라시아주의는 서방 주도의 단극체제에 대응하여, 다극·문명권 중심의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러시아의 장기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 IV. 푸틴 정부의 신유라시아주의적 대외정책의 한계

##### 1. 경제분야: 경제력 격차와 상호의존성의 불균형

EAEU는 러시아 중심의 일극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러시아와 비교 가능한 경제력을 가진 회원국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연합 내부에는 경제력 격차와 무역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성은 협력의 불평등을 고착시켜 EAEU가 러시아의 경제·정치적 의제에 종속되는 경향을 강화하였다. 소규모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반면, 러시아는 이들에 대한 의존이 낮아 비대칭적 상호의존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통합 심화를 제약하는 핵심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sup>38)</sup>

37) “О комплекс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держка и продвиж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за рубежом”, 2022,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https://mid.ru/ru/activity/state\\_programs/](https://mid.ru/ru/activity/state_programs/) (검색일: 2025.08.30.).

〈표 3〉 2024년 기준 EAEU 회원국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

국가	인구수(천 명)	실업률(%)	평균 월 명목 임금(USD)	국내총생산(GDP) (USD)
러시아	146 119,9	3,2	777	2 176
벨라루스	9 109,3	3,0	701	76,1
카자흐스탄	20 283,4	4,7	858	286,0
키르기스스탄	7 281,8	5,3	429	17,5
아르메니아	3 075,8	13,9	951	26,0

출처: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в цифрах: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2025,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온라인), <https://eec.eaeunion.org/upload/files/StatisticsYearbook2025.pdf> (검색일: 2025.04.02).

〈표 3〉에서 제시한 2024년 기준 EAEU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보면, 러시아가 GDP 약 2조 1,760억 달러로 전체의 89%를 차지해 절대적 비중을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10%, 벨라루스 3.5%,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합산해도 1% 미만이다. 이 불균형은 러시아 중심의 종속 구조를 형성하며, 러시아 경기 변동이 다른 회원국에 쉽게 전이되는 취약성을 초래한다. 인구와 임금 등에서도 격차가 커, 러시아는 약 1억 4,600만 명의 인구와 월평균 777달러 임금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EAEU의 일극 구조를 고착시키고 협력의 균형 발전을 제약한다.

러시아의 경제적 우위는 EAEU 내 의제 설정과 의사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원 공급국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아르메니아는 노동이민과 송금을 통해 러시아 경제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적 의존 구조는 통합을 이끄는 동시에, 소규모 회원국들에게 러시아 경제 변동과 제재에 따른 위험을 안겨주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러시아에 비해 소규모 회원국의 전략적 비중은 낮지만, 이들 국가는 러시아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참여 동기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다. 아르메니아는 노동력 이동의 자유와 러시아 시장 접근, 투자 확대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벨라루스는 에너지 공급과 안보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노동 이주 절차 간소화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중점으로 하며, 송금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이를 중요하게 본다. 카자흐스탄은 러

38) Вартанова М. Л. 2018. “Интеграция стран – членов ЕАЭС в рамках общего рынка товаров: препятствия развития и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урнал*, №22(4), 28.

시아 시장과 투자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다.<sup>39)</sup>

EAEU 역내 무역은 러시아 중심의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러시아가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회원국 간 직접 교역은 제한적이다. 2022년 기준 벨라루스-카자흐스탄, 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간 무역은 매우 미미하며, 주요 교역은 러시아-카자흐스탄(17억 3,520만 미국 달러)과 러시아-벨라루스(26억 6,820만 미국 달러)에 집중되어 있다. 아르메니아는 주로 러시아(2억 2,150만 달러)와 벨라루스(760만 달러)에 의존하며, 이는 러시아의 압도적 무역 중심성과 소규모 회원국의 참여 한계를 보여준다.<sup>40)</sup>

유사한 현상은 기계, 장비 등 부가가치 사슬 형성과 기술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품목의 약 90%가 여전히 역외 수입에 의존해 역내 생산 협력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공동 조립 생산을 시도했지만, 자본재 중심의 자립 시장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 또한 러시아에 집중되어, 러시아는 EAEU 최대 투자국으로 기능한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러시아 자본이 주요 투자 주체이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021~2022년 외국인 투자 중 약 62%가 러시아에서 유입되었다.<sup>41)</sup>

EAEU는 회원국 간 경제적 잠재력의 비대칭성, 내부 시장 형성에서의 러시아 중심성, 상호무역의 낮은 수준 그리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차이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합의 균형적 발전을 제약하며, 결과적으로 EAEU는 여전히 불균형적 통합체로 남아 있다. 러시아의 경제적 우위는 회원국 간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소규모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고 통합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연합이 균형 있는 공동시장으로 발전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 2. 군사·안보 분야: 제도적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성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안보 확보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집단방위 체제 구축이 어렵다. 군사 협력의 형식적 성격, 낮

39) Поплавский, Сергей П. Подольский, Федор В. 2024.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ЕАЭС: состояние, динамика, обесп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торговля и торговая политика*, Том 10, №2(38), 82.

40) “О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е товарам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Статистик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Аналитический обзор,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1-7.

41) Поплавский, Сергей П. Подольский, Федор В. 2024.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ЕАЭС: состояние, динамика, обесп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торговля и торговая политика*, Том 10, №2(38), 81.

은 효과성, 정치적 불안정 등은 다자 안보 협력의 실질적 발전을 제약한다. 이로 인해 러시아 주도의 안보 담론은 주로 선언적 수준에 머물며, 공동 위협에 대한 일관된 대응과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러시아의 안보 구상이 통합적 질서로 발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CIS 군사 협력의 형식적 성격이다. CIS의 군사 협력은 창설 초기부터 형식적 성격을 띠며 안정적인 군사적 상호작용의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CIS 현장에는 평화와 안보의 공동 보장, 민족 간 화합 유지, 공동 방위 체제 구축 등이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합의된 행동이 부족해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일부 동맹국들은 점차 CSTO 내 안보 협력 강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현재 CIS의 군사 협력은 공동 영공 방위, 테러 및 극단주의 대응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으며, 국방장관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of Defense) 회의 역시 정례적으로 개최되지만 자문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sup>42)</sup>

둘째, CSTO의 제도적 한계와 낮은 효과성이다. CSTO는 집단안보조약이 국제기구로 전환되었음에도 제도적 한계와 낮은 효과성에 직면해 있다. 핵심 사안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 부족, 낮은 내부 결속력, 자원 분담 이견 등은 조직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으며, 명확한 동맹 의무와 개입 절차의 부재는 제도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사태,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분쟁,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갈등 등에서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10년 키르기스스탄 오시(Osh)<sup>43)</sup> 사태에서 군사 개입을 거부한 것은 조직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심화시켜 우즈베키스탄의 탈퇴로 이어졌다.

셋째, 개별 국가들의 이탈적 성향 역시 CSTO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안보 협력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원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수의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주권 제약을 우려하며 독자적 국방 노선을 선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차례 CSTO를 탈퇴하고 미국 등 외부 파트너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했으며,

---

42) Парамонов В. 2011.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мках СНГ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на примере России 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Центральная Евразия (온라인), <http://www.ceasia.ru/bezopastnost/351-2011-02-22-15-15-20.html> (검색일: 2025.08.05.).

43) 2010년 6월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시와 잘랄아바드(Jalal-Abad)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 간 충돌은 주로 키르기스족과 우즈베크족 간 대립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건은 키르기스스탄 내 권력 엘리트 간의 정치적 갈등이 민족 간 분쟁으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영구적 중립 노선을 고수하며 다자 군사 동맹을 거부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NATO 회원국들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러시아의 영향력 최소화를 추구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러시아 중심의 안보 체제에서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집단 안보 구조는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양자적·부분적 협력으로 전환되었다.<sup>44)</sup>

넷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은 지속적인 정치 불안정이다. 소련 붕괴 이후 역내 국가들은 권력 교체, 시위, 무력 충돌, 헌정 질서 붕괴 등 정치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이는 안보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약화시켰다. 조지아의 내전과 2003년 “장미 혁명”, 우크라이나의 2004년 “오렌지 혁명”, 2014년 사태 및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키르기스스탄의 잇따른 정권 교체,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2018년 “벨벳 혁명”은 모두 국가 체제 불안정과 외교정책 변동을 초래하며, 역내 안보 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sup>45)</sup>

종합하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안보 협력은 구조적 및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 협력의 형식적 성격, CSTO의 낮은 제도적 효율성, 회원국들의 이탈적 경향, 그리고 지속적인 정치 불안정은 집단 안보 체제의 실질적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 간 신뢰 구축과 공동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며, 다자 협력이 아닌 양자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주도의 안보 구상은 통합적 질서로 발전하지 못한 채 상징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 3. 정치 분야: 주권 우선과 초국가적 통합의 제약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국가 주권은 통합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소련 붕괴 이후 다수의 구조적 국가들은 정치적 자율성 확립을 우선시하며 러시아와의 거리를 두었고, 초국가적 제도 설립을 주권 약화의 잠재적 위협으

---

44) Парамонов В. 2011.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мках СНГ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на примере России 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Центральная Евразия (온라인), <http://www.ceasia.ru/bezopastnost/351-2011-02-22-15-15-20.html> (검색일: 2025.08.05.).

45) Притчин, Станислав А. 2021. “В зеркале транзитологии: особенности процессов смены власти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Южного Кавказа”,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25: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мировая политика*, Т. 13, №4, 15.

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주권 민감성은 CIS를 실질적 통합체가 아닌 권고적 협의체로 한정시켰으며, EurAsEC 역시 초국가적 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회원국 간 불신과 권한 이양의 부재로 조정적 협력 수준에 머물렀다.<sup>46)</sup>

이에 비해 EAEU는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체로 평가된다. 초국가적 기구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전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초국가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권한은 기술적 및 통상경제적 사안에 국한되고, 과세, 예산, 에너지, 대외정책 등 핵심 분야는 회원국 정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남아 있다. 주요 결정 또한 합의제와 거부권이 보장되는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Eurasian Intergovernmental Council)에서 이루어진다.<sup>47)</sup>

이와 같은 단계적 관리 구조는 회원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장관급 기구인 위원회의 결정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부총리급),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총리급),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라시아경제최고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국가 원수급)에 의해 단계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다.<sup>48)</sup>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각 단계에서 정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초국가적 기구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EAEU 내에서는 의회, 광범위한 관할권을 지닌 사법기구, 시민 참여 제도 등 완전한 의미의 초국가적 제도가 부재하다. 특히 EAEU 법원은 분쟁 해결과 연합법 해석 권한을 가지지만, 회원국이 불리한 판결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존재한다. 판결 불이행 시 사안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유라시아경제최고이사회로 이관되며, 회원국은 판결이 국내법이나 연합법 규범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sup>49)</sup>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EAEU가 정치 통합을 배제하고 주권 간섭을 최소화한 경제 중심의 실용적 모델임을 보여준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과 강한 주권 의식이 결합된 국가 중심 체제의 결과로, 회원국들은 정치적 종속을 피하면

---

46) Гарбузарова, Елена Г. 202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в контексте евразий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Сравни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2, 28.

47) Медведев, Илья В. 2023. “Евразий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вопросы над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Теоретическая экономика*, №9, 79-81.

48)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온라인), <https://www.eaeunion.org>(검색일: 2024.02.07.).

49) Исполнинов А.С. 2016. “Статус Суда ЕАЭС как отражение опасений и сомнений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Право. Журнал 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4, 162.

서 자국 주권을 보존하는 협력 방식을 선호해 왔다. 따라서 EAEU는 정치적 이념적 기준이나 가치 규범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sup>50)</sup> 결과적으로 EAEU는 국가 주권의 존중과 실용적 경제 협력을 우선시하는 제한적 초국가성의 틀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학자 글라지예프(Sergey Yu. Glazyev)는 EAEU가 완전하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제도의 발전을 수반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단순한 집행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의사결정 중심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역, 재정, 산업, 농업, 교통, 에너지 등 핵심 부문에 공동 부처를 설립하고 세관, 검역, 반독점, 기술 표준, 이주 관리 등의 분야에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sup>51)</sup>

그러나 이러한 구상의 실현은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EAEU 회원국들은 여전히 강한 주권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권한 이양을 국가 독립성과 통제력 약화로 인식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같이 주권을 국가 권력의 배타적 기반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의 제도적 우위에 대해 더욱 강한 경계심을 보인다. 러시아의 경제, 인구 및 군사력 우위는 통합의 비대칭성을 심화시켜 소규모 회원국들이 초국가적 제도 강화를 신중히 대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공동 부처 설립과 같은 제안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통합 심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문화 분야: 문화·정체성 담론과 주변국의 반발

소련을 둘러싼 공동의 역사와 기억은 통합 과정에서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소련 시기의 공동 서사는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으나, 역사 해석의 차이와 민족주의 강화는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러시아는 “형제 민족” 개념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기억을 통합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했지만, 이는 주변국에서 제국적 회귀로 인식되어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은 “소련 점령” 서사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으며 반러시아적 역사 내러티브를 제도화했다. 발트 3국은 소련 시기의 병합

50) Трещенков, Евгений Ю. 2023. “Над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в Европейском союзе и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Вест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 18, №3, 78-81.

51) Глазьев, Сергей Ю. 2017. *Экономика будущего. Есть ли у России шанс?*, Москва, 326.

을 불법적 점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 교육, 외교정책 등 제도 전반에 반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소련 유산 청산과 역사 재해석을 가속화하여 반소련 담론을 국가 정체성의 중심으로 확립했다. 반면 벨라루스는 소련 역사 서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대조국전쟁의 기억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sup>52)</sup>

남캅카스 국가들은 소련 붕괴 이후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통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각기 다르게 해석해 왔다. 아제르바이잔은 반러 정서를 강화하며 “고대 아제르바이잔” 서사와 “소련 점령” 인식을 강조했다지만, 실질적 외교 경제 협력은 유지되고 있다. 조지아는 소련 시기를 “점령기”로 규정하고 박물관과 법 제정을 통해 유럽 중심의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러시아를 위협으로 인식한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소련 유산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러시아와의 역사적 연속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sup>53)</sup>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역사 재해석을 통한 정체성 재구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민족 통합을 위해 소련 유산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며 기념비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아리안과 사마니드 왕조의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해 고대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화하고, 키르기스스탄은 서사시 중심의 내러티브를 통해 국가 기원을 상징적으로 2200년 전으로 설정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탈러시아화와 강한 민족주의적 역사정책을 병행하며 배타적 노선을 취했고,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시기를 식민지기로 규정하고 독자적 문화 정체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sup>54)</sup>

따라서 구소련 국가들은 독자적 역사 정체성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며, 소련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정통성을 재구성하고 있다. 교과서 개정, 기념일 재정립, 기념비 건립 등은 과거의 재해석을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는 단순한 역사 수정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의 일환이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점령자”나 “식민 지배자”로 인식

52) Зверев К.А. 2022.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общие подходы”, *Вестник Бря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4, 40-49.

53) Черемная Т.С. 2024.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как фактор сохране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Большая Евразия—развитие, безопас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7-8.

54) Черемная Т.С. 2024.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как фактор сохране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Большая Евразия—развитие, безопас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9-11.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 및 도시 명칭 변경, 라틴 문자 전환, 새로운 상징물 설치 등은 러시아와의 문화적 단절을 상징하는 조치로 나타난다.<sup>55)</sup>

## V. 결론

본 연구는 푸틴 정부가 신유라시아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이를 대외정책과 지역 통합정책 속에서 제도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신유라시아주의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국가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외정책의 이념적 근거이자 정책적 지침으로 작용해 왔다. 푸틴 집권 이후 이 담론은 외교 및 안보 전략의 실질적 도구로 전환되었으며, EAEU와 CSTO를 통한 제도적 구현을 통해 점차 정책적 실체를 갖추었다.

푸틴 정부의 신유라시아주의 수용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었다. 집권 초기에는 실용적 대외정책에 집중하며 담론적 수용은 제한적이었으나, 집권 중기 이후 구소련 지역의 재통합, 다극체제 지향, 서방 견제와 같은 외교·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신유라시아주의 핵심 요소가 점차 정책과 담론에 반영되었다. 2015년 이후 EAEU 출범과 CSTO 강화, “러시아 세계” 담론 확산은 이러한 수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신유라시아주의는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러시아의 문명국가 정체성과 다극질서 구상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념적 기반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하여 왔다. 하지만 다양한 차원에서의 요인이 푸틴 정부의 신유라시아주의의 정책적 구현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으로는 EAEU 내부의 비대칭성과 낮은 상호의존성이, 안보적으로는 CSTO의 형식적 협력이, 정치적으로는 회원국의 주권 우선과 외교 다변화가 통합 심화를 제약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러시아 중심 서사는 주변국의 민족주의와 반러 정서를 부추겨 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신유라시아주의의 제도적 구현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된 신유라시아주의의 정책적 함의와 내부 제약을 염두에 둘 때, 신유라시아주의 담론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정당성을 강화하는 이념적 전략적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유라시아주의의 급진적 제국주의적 요소가 대외정책에서 제외된 것처럼, 향후 대외정책도 실용적 요소를 중심으로 운용

55) Грибовод, Екатерина Г. и др. 2019. “Полити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амят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одходы и практика”, *Дискурс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33-34.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서방 중심의 단극 체제에 대응하여 중국, 인도, 이란 등 비서방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신유라시아주의가 제시한 유라시아 통합 논리는, 러시아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경제적·군사적·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정희석. 1999. “19세기 러시아 친(親)슬라브주의자들의 슬라브 통합사상: 크림전쟁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제39집, 1호.
- 정희석. 2014. “푸틴정부의 대외정책에서의 유라시아주의적 경향성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7(17).
- Erşen, Emre. 2004. “Neo- Eurasianism and Putin’s ‘multipolarism’ in Russian foreign policy”, *Turkish Review of Eurasian Studies*. Annual, №4.
- Laruelle, Marlene. 2006. “Aleksandr Dugin: A Russian Version of the European Radical Righ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Laruelle, Marlene. 2008.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온라인),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검색일: 2025.08.30.).
- Вартанова М. Л. 2018. “Интеграция стран – членов ЕАЭС в рамках общего рынка товаров: препятствия развития и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урнал*, №22(4).
- Вернадский, Георгий В. 2014. *Начертание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Эксмо.
- Видеркер, Штефан. 2010. “Континент Евразия: классическое евразийство и геополитика в изложении Александра Дугина”, *Форум новейшей восточноевропейской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 Русское издание.
- Гарбузарова, Елена Г. 202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в контексте евразий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Сравни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2.
- Гваришвили А.А. 2011. “К вопросу о природе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еларуси И России”,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3.
- Глазьев, Сергей Ю. 2017. *Экономика будущего. Есть ли у России шанс?*, Москва.
- Грибовод, Екатерина Г. и др. 2019. “Полити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амят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одходы и практика”, *Дискурс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 Гумилёв, Лев Н. 2019 *Ритмы Евразии: эпохи и цивилизации*, СПб.: Ленинград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 “Декларация о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от 18 ноября 2011 г.”,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온라인) <https://eec.eaeunion.org/upload/medialibrary/0de/Deklaratsiya-2011.pdf> (검색일: 2024.08.05.).
- “Доклад о состоянии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 членам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

- ческого союза в 2017 году”, 2018,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온라인) [https://eec.eaeunion.org/upload/medialibrary/017/Report\\_2017.pdf](https://eec.eaeunion.org/upload/medialibrary/017/Report_2017.pdf) (검색일: 2025.04.02.).
-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Г. 2014. *Евразийский реванш России*, Издательство «Алгоритм», Москва.
-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Г. 1997. *Основы геополитик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Москва: Арктогея.
- “ЕАЭС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ий центр формирования Большо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2024,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온라인), <https://russiancouncil.ru/> (검색일: 2025.08. 26.).
- Зверев К.А. 2022.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общие подходы”, *Вестник Бря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4.
- Исаева, Оксана С. 2023. “Идеи классических евразийцев в неоевразийских учениях”, *Электронный научный журнал «Наука. Общ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о»*, Т. 11, №2.
- Исполинов А.С. 2016. “Статус Суда ЕАЭС как отражение опасений и сомнений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Право. Журнал 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4.
- Крогов, Михаил И. 2011. “СНГ – проблемы, опыт, перспективы”, Истина (온라인) <https://e-cis.info/page/3536/80573/> (검색일: 2025.07.18.).
- Махмутова, Евгения В. 2019. “Влияние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на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Вест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ом14, №3.
- Медведев, Илья В. 2023. “Евразий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вопросы над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Теоретическая экономика*, №9.
- Мальченков, Станислав А. 2022. “Цивилизационный дискурс в высказываниях В. В. Путина”, *Дискурс-Пи*, Т. 19, №2.
- Осадчая, Галина И. 2019. *Становлени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деи, реальность, потенциал: монография*, Изд-во «Экон-Информ».
- Парамонов В. 2011.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мках СНГ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и рекомендации(на примере России 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Центральная Евразия* (온라인), <http://www.ceasia.ru/bezopastnost/351-2011-02-22-15-15-20.html> (검색일: 2025.08.05.).
- Поплавский, Сергей П., Подольский, Федор В. 2024.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ЕАЭС: состояние, динамика, обесп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торговля и торговая политика*, Том 10, №2(38).
- Притчин, Станислав А. 2021. “В зеркале транзитологии: особенности процессов смены власти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Южного Кавказа”,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25: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мировая политика, Т. 13, №4.
- Путин, Владимир. 1999. “Россия на рубеже тысячелетий”, (온라인), [https://www.ng.ru/politics/1999-12-30/4\\_millennium.html](https://www.ng.ru/politics/1999-12-30/4_millennium.html) (검색일: 2025.11.18.).
- Трещенков, Евгений Ю. 2023. “Над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в Европейском союзе и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Вест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 18, №3.

- Трубецкой, Николай С. 1995. *Европа и человечество*, Москва.
- Трубецкой, Николай С. 1922. “Религии Индии и христианство”, *На путях, Берлин* (온라인), <http://gumilevica.kulichki.net/TNS/tns12.htm> (검색일: 2025.02.18.).
- Савицкий, Петр Н. 1997. *Континент Евразия*, М.: Аграф.
- Савицкий, Петр Н., Сувчинский, Петр П. 1921. “Исход к Востоку”, *Тип: Балкан* (온라인), <http://nevmenandr.net/eurasia/1921-isxod.php> (검색일: 2025.05.07.).
- Савицкий, Петр Н. 1923. “Степь и оседлость. Россия между Европой и Азией”, (온라인), <http://gumilevica.kulichki.net/SPN/spn03.htm> (검색일: 2025.06.12.).
- Черемная Т.С. 2024.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как фактор сохране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Большая Евразия – развитие, безопас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Abstract 】

The Adoption and Foreign Policy Implementation  
of Neo-Eurasianism under the Putin Administration

Ravshanbekova Bakhtierkhon · Jung, HeeSuk

During the Putin administration, Neo-Eurasianism became a central ideological framework shaping Russia's foreign policy and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It provided the conceptual basis for legitimizing Russia as a "Civilization state" and for advancing a multipolar world order, as well as guiding projects such as the EAEU and the CSTO. Although initially limited by pragmatic foreign policy priorities, its influence expanded amid the perceived need to reintegrate the post-Soviet space, global multipolarization, and rising confrontation with the West. The establishment of the EAEU, the strengthening of the CSTO, and the spread of the "Russian World" narrative exemplify this shift. However, structural constraints—including economic asymmetry, member states emphasis on sovereignty, and entrenched anti-Russian sentiment prevented deeper integration. Even so, Neo-Eurasianism remains a core element of Russia's strategic worldview and is likely to continue serving as an ideological resource in its foreign policy.

**Key Words** : Neo-Eurasianism, Putin Administration, Russian Foreign Policy, Russian Identity,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